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발달궤적

정 병 삼*

초 록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종단적 변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KYPS) 데이터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남녀 청소년 2,844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에 근거하여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애착관계 등이 교사-학생관계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성에 대해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성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감소의 정도는 지수함수(exponential) 양상을 보였다. 둘째,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감의 초기 수준이 높았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친밀감의 감소폭도 높았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애착은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학생-교사관계, 초기 청소년, 발달궤적, 잠재성장모형

* 육군3사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I. 서 론

교사-학생 관계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이론과 연구에서 또래관계(Jerome et al., 2009), 사회적 유능성(Rimm-Kaufman et al., 2002), 학업성취(Burchinal et al., 2002), 학교적응(Pianta & Steinberg, 1992) 등에 대한 매우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교사-학생관계가 학생들의 행동예측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학생이 교사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며,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새로운 교사와의 관계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어떤 학생들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비록 교사는 매년 바뀔지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학생들의 경우 교사가 바뀔 때마다 관계의 질이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Howes et al., 1998; Pianta & Stuhlman, 2004).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교사-학생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당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애착관계, 사회경제적 지위(SES), 인종, 성, 부모가 아닌 성인과의 관계에서 문제 등이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O'Connor & McCartney, 2006; Pianta & Stuhlman, 2004; Vondra et al., 2001). 본 연구는 한국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단연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교사-학생관계의 개별적인 발달궤적을 제시하고, 그 관계의 초기수준과 변화를 예측하는 인구통계적 배경변수, 행동적, 학업적, 가정적 예측변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부모, 친척, 또래 등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장기적인 애착관계의 대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패턴과 비슷하게, 교사와 일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그러한 관계는 학업, 대인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rchinal et al., 2002; Howes et al., 1994; 1998; Pianta et al., 1997; 2002). 초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착유형이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애착유형은 초기 청소년기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Hamilton & Howes, 1992; Pianta &

Steinberg, 1992). 그러나 개개인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와의 애착관계와는 다른 관계의 유형을 교사와의 관계에서 나타낼 수 있고(Goossens & van IJzendoorn, 1992; van IJzendoorn et al., 1992), 그러한 관계는 부모와의 애착에 더하여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에 고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van IJzendoorn et al., 1992).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발달과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의 발달과정적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사-학생 관계의 일반적인 성격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에 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가정이나 학원, 보육기관 등 초기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과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Pianta, 2006).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다. 즉, 학급, 또래집단, 학업성취 수준, 물리적 환경, 규칙, 교사 등 많은 환경적 요인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매 학년 마다 바뀌는 교사들은 변화하는 환경의 맥락 속에서 각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비교적 항상성이 유지되는 물리적 환경과 일관성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경험하는 가정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에는 성격과 같은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끊임 없이 변화하는 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영향은 종단연구의 수행을 통해 교사-학생관계의 발달경향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알 수 있다(Jerome et al., 2008).

교사-학생관계를 연구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의문 중에 하나는 학생들은 매년 바뀌는 교사와 개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지 아니면 보다 일반적인 일관성있는 관계의 유형을 나타내는지 여부이다(Howes & Hamilton, 1992).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유년기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가 매년 바뀐다고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Howes & Hamilton, 1992). 이러한 교사-학생관계의 안정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개별학생들에게 관계형성에 관한 일종의 내적기제를 만들어 각 교사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내면화된 교사와의 애착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유년기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사와의 애착유형의 57% 정도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owes et al., 1998). Pianta와 Stuhlman(2004)은 교사들이 개별 학생에 대해 지각하는 관계의 질은 매년 비교적 약한(modest)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학생이 매년 바뀌는 교사에 대해 지각하는 관계의 질은 안정적이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관계형성의 주도권은 어른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고 개별 학생들은 저마다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면화된 모델을 형성하는데, 교사-학생 관계의 질은 바로 이 모델을 반영한다(Cicchetti et al., 1991; Kopp, 1989).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의 경우 어떤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를 받기위해 어른들에게 의존하지만, 성장함에 따라서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교사-학생의 관계가 개별 학생에게 미치는 기능적 역할은 달라지게 되고 그 관계의 발달궤적은 이러한 규범적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Pianta & Stuhlman, 2004). 이에 더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변화한다는 이론이 제기된다(Eccles & Midgley, 1989; Harter, 1996). 즉,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급의 규모가 커지고 교사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며 따라서 관계는 좀더 평가적이고 공식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심리사회적 발달상으로 초기 청소년들은 좀더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요구하지만 중학교에서 진학하면서 교사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는 더욱 형성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사-학생의 질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관계의 질의 발달궤적에는 분명

히 개인차가 존재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교사-학생 관계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체계의 한 부분이며, 관계의 맥락, 귀인, 애착의 질, 교사-학생이 형성한 내적관계의 스타일, 학생의 인지적 발달, 가정환경 등이 영향을 준다(Ford & Lerner, 1992; Pianta et al., 2003; Sameroff, 1995). 아동기 학생들은 부모나 양육자들과의 관계 스타일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한 스타일이 교사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초기 경험, 행동양식, 입학초기 학습능력 등과 같은 요인도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와 형성하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특성들이 교사-학생 관계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Ladd et al., 1999).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학생관계의 발달과정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배경변수와 초기 경험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의 초기 청소년기에 형성하는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1) 인구통계적 변수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SES) 등은 선행연구에서 교사-학생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은 교사-학생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교사와 보다 높은 갈등적 관계를, 여학생은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러한 양상은 교사-학생관계의 종단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acken & Craine, 1994; Hamre & Pianta, 2001; Saft & Pianta, 2001). Hamre와 Pianta(2001)는 남학생들의 경우 아동기에 교사에게 친밀감을 느끼더라도 청소년기에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아동기에 교사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록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교사-학생 관계의 발달과정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교사-학생 관계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

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부정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Pianta et al., 2002). 이러한 예측의 한 가지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일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Pianta & Stuhlman, 2004).

2)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초기 청소년들이 경험한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의 질 역시 교사-학생 관계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Early et al., 2002). 유아기에 양육자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많이 경험한 학생일수록 사회적, 관계적 기술이 뛰어나고 교사를 포함한 성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아동이 성장할수록 스스로 또래, 혹은 친척, 이웃, 교사 등 중요한 성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을 익히게 되고, 양육자 변수의 영향이 줄어든다.

그러나 여전히 유년기에 경험한 양육자와의 관계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의미있는 성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와 형성하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Connor & McCartney, 2006). 이 연구가 제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은 아동기에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관계는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결손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양육자에 대한 애착의 질이 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사-학생 관계가 부정적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는 초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교사-학생관계의 초기치에는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성별은 초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교사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교사와 형성하는 긍정적 관계의 초기치 및 기울기 수준이 높을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초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교사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 수록 교사와 형성하는 긍정적 관계의 초기치 및 기울기 수준이 높을 것이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초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교사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의 초기치 및 기울기는 교사와 형성하는 긍정적 관계의 초기치 및 기울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가운데 확률표집을 통해 추출한 2,844명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5차에 걸쳐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5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반복조사를 통해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844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들은 1차 년도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가 5차 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로서 전국 초기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서 적합하다(이경상·조혜영, 2004).

3. 연구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교사-학생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KYPS데이터 가운데 교사-학생관계 척도를 사용했다. 교사-학생관계 척도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지지, 신뢰, 애정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점 척도).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주축요인방식(PAF)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사각회전방식(Oblimin)으로 분석한 결과 3개의 문항은 단일 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요인은 전체분산의 46.57%를 설명했다. 구인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1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가장 많은 사례수를 포함하고 있고, 반복측정에 따른 기억효과 및 전이효과(carryover effect)를 배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병삼, 2010). 3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78이었으며,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교사-학생관계 척는 양호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독립변수

(1) 성별

성별은 명목변수로서 KYPS데이터에 입력된 성별코드를 남자는 0, 여자는 1로 코딩하여 처리했다. 그 이유는 연구가설에서 여자 청소년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결과해석의 편의상 여자를 1로 코딩했다. 분석결과 남자는 1,524명(53.6%) 이었고, 여자는 1,320명(46.4%)로서 양성간 대체적으로 균형있게 표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는 KYPS데이터에 저장된 월평균소득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월평균소득은 0원에서 3000만원까지 총 83개 급간으로 구분된 서열척도로 코딩되어 있다. 분석결과 월 소득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전체 연구대상의 59.5%가 분포되어 있었다.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KYPS데이터의 부모-자녀 애착척도로 측정했다. 부모-자녀 애착척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점 척도).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주축요인방식(PAF)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사각회전방식(Oblimin)으로 분석한 결과 6개의 문항은 단일 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요인은 전체분산의 53.47%를 설명했다. 6개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83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교사-학생관계의 발달과정의 선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무런 독립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모형에 대해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과 비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여, 두 모형 중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기저모형(baseline model)으로 선정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을 시간-고정적(time-invariant)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교사-학생관계를 반복측정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분석을 실

시켰다. 분석시에는 성별이 교사-학생관계의 절편(γ_{11})과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γ_{21})의 유의미성을 검토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시간-고정적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교사-학생관계를 반복측정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시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추가하여 교사-학생관계의 절편(γ_{12})과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γ_{22})의 유의미성을 검토했다.

세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자녀 애착관계를 시간-고정적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교사-학생관계를 반복측정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시에는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추가하여 교사-학생관계의 절편과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성을 검토했다. 분석을 위하여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교사-학생관계의 절편(γ_{13})과 기울기(γ_{23})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성을 검토했다.

공통적으로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 절대적 적합도지수(χ^2/df , RMSEA)와 기술적 적합도지수(CFI, NNFI)를 함께 검토했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먼저 주요변수의 기초통계치를 제시하고,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조건모형의 분석에 앞서 가장 적합한 무조건모형의 탐색을 실시한 이후 각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다.

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치 및 다변량분석 가정 점검

〈표 1〉에서는 교사-학생관계, 성,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관계 등 4개 변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행렬을 제시했다.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시간-불변적 변수는 하나의 측정치를 분석했고, 교사-학생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시간-

가변적 변수는 5년간의 측정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했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행렬(N=2,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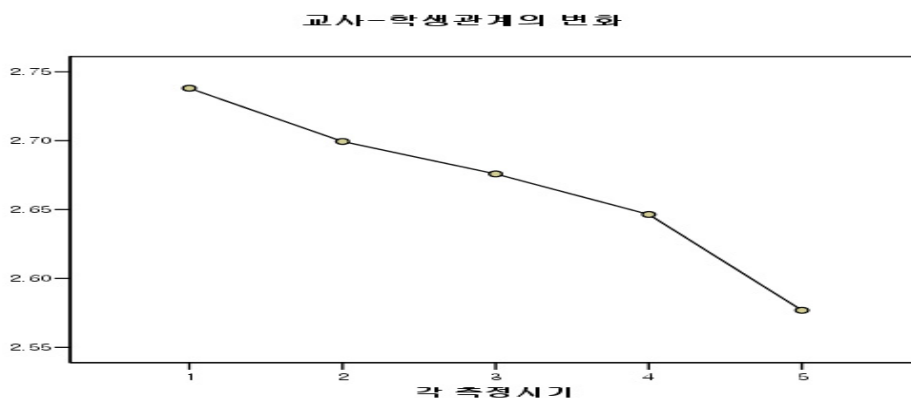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1								
2	-.02							
3	.14	.11						
4	.21	.04	.28					
5	.18	.01	.16	.31				
6	.08	-.01	.12	.19	.27			
7	-.02	-.01	.09	.12	.18	.27		
8	-.06	.01	.07	.09	.14	.21	.32	
M	-	302.14	3.73	2.73	2.69	2.67	2.64	2.57
SD	-	176.51	.73	.89	.88	.82	.81	.79

* 변수 1: 성별, 2: 사회경제적 지위, 3: 부모-자녀관계, 4~8: 5년간의 교사-학생관계

<표 1>의 표본자료가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변량분석을 위한 가정에는 관찰값의 독립성, 극단치(outliers) 확인, 다변량정규분포, 변량-공변량행렬의 동질성 등이 있다. 먼저 연구설계를 검토했을 때 8개 변수는 확률 표집에 의한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단변량 및 다변량 극단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Z점수가 3.29이상인 값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8개 변수의 히스토그램에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점검하고 Shapiro-Wilk's 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변인 모두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표본자료는 다변량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조건 모형 탐색

예측변인을 투입하기 전 관찰자료에 가장 적합한 무조건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교사-학생관계의 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과 비선형성장을 가정한 모형, 2차항이 추가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교사-학생관계의 변화양상은 [그림 1]에, 각 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 지수 등은 <표 2>에 제시했다.



[그림 1] 교사-학생 관계의 변화 양상

<표 2> 교사-학생관계에 대한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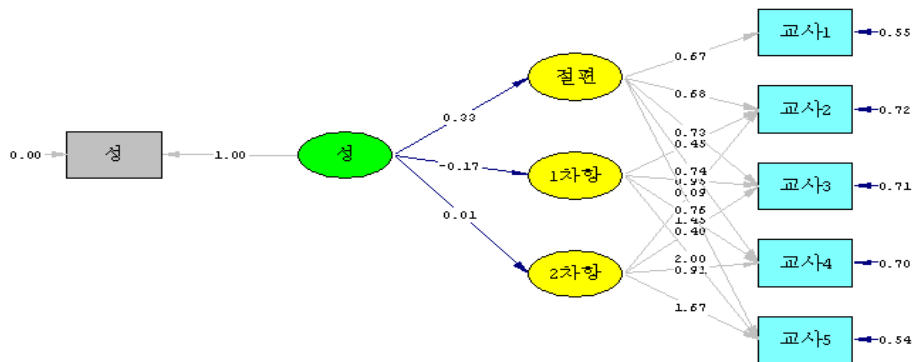
변수	선형성장모형	비선형자유추정모형	2차항 추가 모형
χ^2	37.09	32.14	4.42
df	10	7	6
가정폭력			
P	<.001	<.001	.62
RMSEA	.031	.036	<.001
NNFI	.98	.97	1.00
CFI	.98	.98	1.00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학생관계의 선형성장모형($\chi^2=37.09$, $df=10$, $\chi^2/df=3.70$)과 비선형성장모형($\chi^2=32.14$, $df=7$, $\chi^2/df=4.59$), 2차항 추가모형($\chi^2=4.42$, $df=6$, $\chi^2/df=.73$)의 적합도를 검토했을 때, 2차항 추가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2차항 추가모형과 기타 두 개의 모형이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계적 카이제곱검증($\Delta\chi^2$)을 실시하여 적합도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NC(Normed Chi-square)와 RMSEA를 검토했을 때 2차항 추가모형은 다른 두 개의 모형에 비하여 매우 적합도가 양호했으며, 증가 적합도 지수(NNFI, CFI) 역시 상당히 개선된 값을 산출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2차항 추가모형을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가장 적합한 기저모형(baseline model)으로 채택했다. 기저모형의 모수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절편의 분산($\psi_{11}=.38$, $p < .001$)과 1차항 기울기의 분산($\psi_{22}=.17$, $p < .001$), 2차항 기울기의 분산($\psi_{33}=.01$, $p < .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세 개의 분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후 조건모형의 분석에서 독립변수를 투입함으로써 각 모수치의 분산의 감소하는 크기를 검토함으로써 각 독립변수의 효과크기(effect size)를 알 수 있다.

3. 성별이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정폭력의 절편과 기울기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남자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남성성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했다. 조건모형은 [그림 2], 기술통계치는 <표 3>, 잠재성장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했다.



[그림 2] 성별이 교사-학생관계의 미치는 종단적 영향의 조건모형

<표 3> 각 측정시기별 남녀 집단의 교사-학생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초 4학년	초 5학년	초 6학년	중 1학년	중 2학년
남	2.56(.87)*	2.55(.85)	2.61(.79)	2.66	2.62(.74)
여	2.94(.87)	2.86(.88)	2.75(.86)	2.62	2.52(.83)

* 괄호 안: 표준편차

<표 4> 성별의 효과에 관한 모수 추정치

경로 계수	모수추정치(오차)	적합도
성별 → 교사-학생 관계의 절편	.40(.03)***	χ^2 11.47
성별 → 교사-학생 관계 1차항 기울기	-.14(.03)***	df 8
성별 → 교사-학생 관계 2차항 기울기	.00(.01)	p .18
절편의 분산(ψ_{11})	.32(.03)***	RMSEA .01
1차항 기울기의 분산(ψ_{22})	.15(.03)***	NNFI 1.00
2차항 기울기의 분산(ψ_{33})	.01(001)***	CFI 1.00

***p <.001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NC(Normed Chi-square, χ^2/df) 값을 검토했다. Kline(1998)은 NC값이 3미만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χ^2 값은 표본이 커질수록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기술적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Fan, 1996).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표본(sample)이 아닌 모집단(population)에서 추정할 경우 기대되는 적합도 지수로서 통상 그 값이 0.05 미만일 경우 적합도가 매우 양호고, 0.08미만일 경우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NNFI(Non-Normed Fit Index)는 TLI(Tucker-Lewis Index)지수라고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례수에 덜 민감한 지수로서 구조모형의 분산이 전체적인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하며, 그 값이 .95보다 크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Bentler & Bonett, 1980). CFI(Comparative Fit Index) 역시 사례수에 덜 민감한 지수로서 NNFI가 완벽한 모형을 가정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CFI는 간명도를 고려하지 않아 모형이 복잡할수록 양호한 값을 갖는 단점이 있으므로 RMSEA,

NNFI와 함께 고려해야하며, .95이상이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의 기준으로 볼 때 <표 4>에 제시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에서 $NC(\chi^2/df=1.43)$ 값은 Kline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MSEA값도 .08미만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RMSEA=.01), 다른 기술적 적합도 지수 역시 .95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NNFI=1.00, CFI=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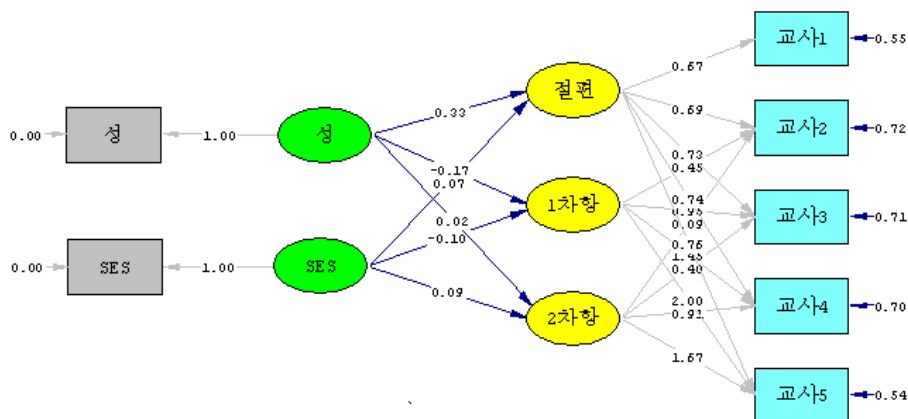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성별(여성)이 교사-학생관계의 절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gamma_{11}=.40$, $p < .001$). 즉, 여학생일수록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의 초기치가 높았다. 성별이 교사-학생관계의 1차항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gamma_{21}=-.14$,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으나, 2차항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gamma_{31}=.001$, $p=.54$).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여학생일수록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의 감소폭이 증가하여, 마지막 측정시기에서는 오히려 남학생이 지각하는 친밀감의 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이 없는 무조건 모형에 비하여 성별이 예측변인으로 투입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즉, 절편, 1차항 기울기, 2차항 기울기의 분산의 감소분을 검토했다. 그 결과 무조건 모형의 절편 분산($\psi_{11}=.38$)에 비하여 조건모형의 절편의 분산($\psi_{11}=.32$)이 감소했으며, 성별이 교사-학생관계의 절편에 미치는 효과크기(effect size)는 15.7%로서 고려할만한(considerable) 수준이었다. 무조건 모형의 1차항 기울기 분산($\psi_{22}=.17$)에 비하여 조건모형의 1차항 기울기 분산($\psi_{22}=.15$) 역시 감소했으며, 성별이 교사-학생관계의 1차항 기울기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11.7%로서 고려할만한 수준이었다. 조건 모형의 2차항 기울기 분산($\psi_{33}=.01$)과 조건모형의 2차항 기울기 분산($\psi_{33}=.01$)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성별이 교사-학생관계의 2차항 기울기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성별이 교사-학생관계에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4.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교사-학생관계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했다. 조건모형은 [그림 3]에,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했다.



[그림 3]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의 조건모형

<표 5>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경로 계수	모수추정치(오차)	적합도
SES → 교사-학생 관계의 절편	.07(.00)**	χ^2 11.50
SES → 교사-학생 관계 1차항 기울기	-.10(.00)**	df 10
SES → 교사-학생 관계 2차항 기울기	.09(.00)**	p .32
절편의 분산(ψ_{11})	.23(.03)***	RMSEA .007
1차항 기울기의 분산(ψ_{22})	.11(.03)***	NNFI 1.00
2차항 기울기의 분산(ψ_{33})	.01(001)**	CFI 1.00

p <.01, *p <.001

<표 5>에 제시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에서 $NC(\chi^2/df=1.15)$ 값은 Kline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MSEA값도 .05미만으로서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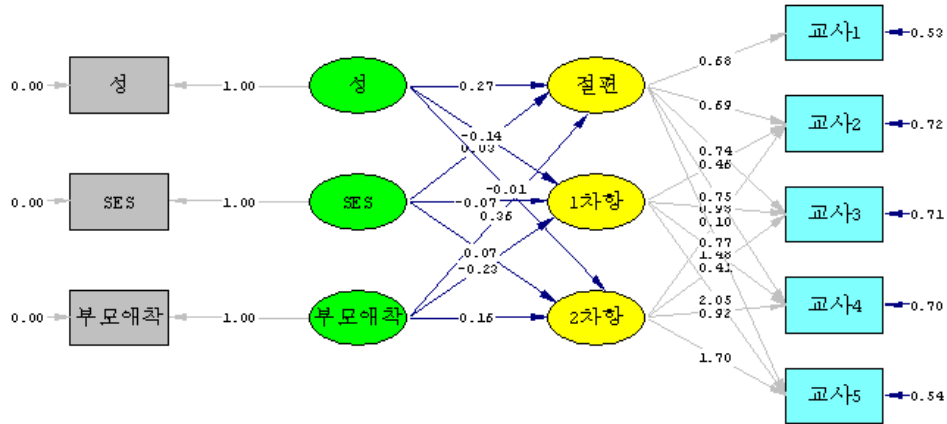
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RMSEA=.007), 다른 기술적 적합도 지수 역시 .95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NNFI=1.00, CFI=1.00).

다음으로 각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SEI)가 성별에 추가하여 교사-학생관계의 절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gamma_{12}=.07$, $p < .01$).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의 초기치가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사-학생관계의 1차항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gamma_{22}=-.10$,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고, 2차항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다($\gamma_{32}=.09$, $p < .01$). 즉,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별에 추가하여 예측변인으로 투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추가적인 효과, 즉, 절편, 1차항 기울기, 2차항 기울기의 분산의 감소분을 검토했다. 그 결과 성별만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의 절편 분산($\psi_{11}=.32$), 1차항 기울기 분산($\psi_{22}=.15$), 2차항 기울기 분산($\psi_{33}=.01$)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의 절편 분산($\psi_{11}=.23$), 1차항 기울기 분산($\psi_{22}=.11$)이 감소했고, 2차항 기울기 분산($\psi_{33}=.01$)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별에 추가하여(over and above) 절편에 대해 28.1%, 1차항 기울기에 대해 26.6%의 효과 크기를 갖고, 2차항 기울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사-학생관계의 발달계획에 종단적 효과를 갖을 것이라는 두 번째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5.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세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자녀 애착관계를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교사-학생관계의 절편과 기울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했다. 조건모형은 [그림 4]에,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했다.



[그림 4] 부모-자녀관계가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의 조건모형

<표 6> 부모-자녀관계를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경로 계수	모수추정치(오차)	적합도
부모애착 → 교사-학생 관계의 절편	.36(.02)***	χ^2 14.43
부모애착 → 교사-학생 관계 1차항 기울기	-.23(.02)***	df 12
부모애착 → 교사-학생 관계 2차항 기울기	.16(.01)***	p .27
절편의 분산(ψ_{11})	.19(.03)***	RMSEA .008
1차항 기울기의 분산(ψ_{22})	.10(.03)***	NNFI 1.00
2차항 기울기의 분산(ψ_{33})	.01(001)***	CFI 1.00

p <.01, *p <.001

<표 6>에 제시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에서 $NC(\chi^2/df=1.20)$ 값은 Kline이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할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MSEA값도 .05미만으로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RMSEA=.008), 다른 기술적 적합도 지수 역시 .95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NNFI=1.00, CFI=1.00).

다음으로 각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모-자녀관계가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추가하여 교사-학생관계의 절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했다($\gamma_{13}=.36, p < .001$). 즉, 부모-자녀관계의 애착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의 초기치가 높았다. 부모-자녀관계가 교사-학생관계의 1차항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gamma_{23}=-.23,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2차항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gamma_{33}=.16, p < .01$). 즉,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착과 신뢰감이 높을수록 교사-학생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성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추가하여 예측변인으로 투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추가적인 효과, 즉, 절편, 1차항 기울기, 2차항 기울기의 분산의 감소분을 검토했다. 그 결과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만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조건 모형의 절편 분산($\psi_{11}=.23$), 1차항 기울기 분산($\psi_{22}=.11$), 2차항 기울기 분산($\psi_{33}=.01$)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의 절편 분산($\psi_{11}=.19$), 1차항 기울기 분산($\psi_{22}=.10$), 2차항 기울기 분산($\psi_{33}=.008$)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추가하여(over and above) 절편에 대해 17.4%, 1차항 기울기에 대해 9%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2차항 기울기에 대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부모-자녀관계가 교사-학생관계의 발달케속에 종단적 효과를 갖을 것이라는 세 번째 연구 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이론적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학생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곡선형 형태의 감소세를 보인다. 즉,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성이 초반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후반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Eccles & Midgley, 1989; Harter, 1996).

학생들은 초등학교 기간동안은 일과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한 명의 담임교사와 보내며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가 많은 반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급의 규모가 커지고 교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도 감소한다. 이러한 사실이 교사-학생관계의 발달궤적이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심리사회적 발달상으로 초기 청소년들은 좀더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요구하지만 중학교에서 진학하면서 교사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는 더욱 형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사-학생의 질은 저하된다. 하지만 관계의 질의 발달궤적에는 분명히 개인차가 존재하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통해 이러한 개인차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수의 투입이 요구된다.

둘째, 성별은 교사-학생관계의 발달궤적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 즉, 여학생($M=2.94$, $SD=.87$)이 남학생($M=2.56$, $SD=.87$) 보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초기치가 높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사에 대해 느끼는 신뢰와 친밀감의 감소폭이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지각하는 친밀감은 감소하는 반면 갈등수준은 증가하고, 여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acken & Craine, 1994; Hamre & Pianta, 2001; Ladd et al., 1999; Saft & Pianta, 2001).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학생들의 경우 교사에 대해 지각하는 친밀감의 초기치는 높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이를 천정효과(ceiling effect)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학생들의 경우 친밀감의 초기치가 높기 때문에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폭도 큰 경향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의 경우 교사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과 갈등을 동시에 묻는 질문으로 설문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KYPS 설문의 경우 친밀감에 대한 문항들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이므로 미국인들의 특성상 교사와의 관계에서 겪는 친밀감과 갈등에 대해 가감없이 응답했을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경우 한국 청소년들이 겪는 친밀감에 대한 응답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위의 연구결과는 진정한 성차로 이해할 수 있다. Hamre와 Pianta(2001)가 밝힌바와 같이 여학생들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친밀감을 기대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습의 환경은 교사와의 접촉이 대폭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그만큼 교사와의 관계에서 얻는 지지와 친밀감을 감소하게 된다. 이는 Saft와 Pianta(2001)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즉, 학년 초기에 교사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dependency) 높은 여학생일 수록 학년 후기에 지각하는 갈등정도가 높았으나, 남학생들은 그러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사회경제적지위(SES)는 교사-학생관계의 발달케적에 유의미한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정도고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밀감이 감소하는 정도도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감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Pianta와 Stuhlman(200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감의 발달에 부적(negative)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 보다는 천정효과(ceiling effect)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의 초기치가 높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밀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Hamre와 Pianta(2001), O'Connor와 McCartney(2006)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지위는 교사와의 관계에 초기치에는 정적(positive) 영향을 미치고, 기울기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천정효과에 관련하여 해석했다. 특별히 사회경제적지위는 성별에 추가하여 교사-학생 관계의 1차항 기울기 분산의 26.6%를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가 감소함으로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감소폭을 늦추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부모-자녀애착관계는 교사-학생관계의 발달케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자녀관계의 질(quality)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감의 초기치가 높고, 이후 친밀감의 감소폭이 작다. 물론 통계적 결과 자체는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교사-학생관계 기울기의 1차항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2차항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 역시 천정효과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Jarome 등(2008)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관계(maternal care and sensitivity)의 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교사와의 관계의 초기치에는 정적 영향, 1차항에는 부적

영향, 2차항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연구자들은 이를 친정효과의 맥락에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2차항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본 연구 결과도 그와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착과 친밀감의 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이웃, 친척, 교사 등 교류가 있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Early et al., 2002; Howes et al., 1998), 부모와의 관계는 교사와의 관계에 종단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두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를 단순히 소득수준으로만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학생관계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외국문헌만을 참고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교사-학생관계에 대한 국내연구의 문헌분석 좀 더 폭넓게 수행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entler, K. A. & Bonett, D. G.(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88, pp. 588-606.
- Bracken, B. A., & Craine, R. M.(1994). Children's and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 Do age, race, and gender define normalcy?.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Vol. 12, pp. 14-32.
- Burchinal, M., Peisner-Feinberg, E., Pianta, R., & Howes, C.(2002). Development of academic skills from preschool through through second grade: Family and classroom predictor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40, pp. 415-436.
- Cicchetti, D., Ganiban, J., & Barnett, D.(1991).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high-risk populations to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s.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pp. 15-4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rly, D. M., Rimm-Kaufman, S. E., & Cox, M. J.(2002).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 wariness i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Vol. 2, pp. 355-377.
- Eccles, J. S., & Midgley, C.(1989). Stage/environment fi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rooms for early adolescents. In R. E. Ames, & C.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Vol. 3, pp. 139-186). New York: Academic Press.
- Fan, X.(199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hat do they have in comm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4, pp. 64-78.
- Ford, D. H., & Lerner, R. M.(1992). *Developmental systems tehory: An integrative approach*. Newbury Park, CA: Sage.

- Goosens, F. A., & van IJzendoorn, M. H.(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 to professional caregivers: Relation to infant-parent attachment and day-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Vol. 61*, pp. 832-837.
- Hamre, B. K., & Pianta, R. C.(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 grade. *Child Development, Vol. 72*, pp. 625-638.
- Harter, S.(1996). Teacher and classmate influence on scholastic motivation, self-esteem, and level of voice in adolescents. In J. Juvonen & K. Wentzel (Eds.), *Social motivation: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pp. 11-4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wes, C., & Hamilton, C. E.(1992). Children's relationship with child care teachers: Stability and concordance with maternal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Vol. 69*, pp. 418-426.
- Howes, C., Hamilton, C. E., & Matheson, C. C.(1994).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aspects of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Vol. 65*, pp. 253-263.
- Howes, C., Hamilton, C. E., & Philipsen, L. C.(1998). Stability and continuity of child-caregiver and child-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Vol. 69*, pp. 418-426.
- Jerome, E. M., Hamre, B. K., & Pianta, R. C.(2008). Teacher-Child relationships from kindergarten to six grade: early childhood predictors of teacher-perceived conflict and closeness. *Social Development, Vol. 18 No. 4*, pp. 915-945.
- Kline,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st ed.). NY: The Guilford Press.
-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5*, pp. 343-354.
- Ladd, G. W., Birch, S. H., & Buhs, E. S.(1999). Children's social and scholastic lives in kindergarten: Related sphere's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Vol. 70*, pp. 1373-1400.

- O'Connor, E., & McCartney, K.(2006). Testing associations between young children's relationship with mothers and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8*, pp. 87-98.
- Pianta, R. C., Hamre, B., & Stuhlman, M.(2003).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In W. M. Reynolds, & G. E. Miller(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Vol. 7, pp. 199-234). New York: John Wiley & Sons.
- Pianta, R. C., La Paro, K. M., Payne, C., Cox, M. J., & Bradley, R.(2002). The relation of kindergarten classroom environment to teacher,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and child outcome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 102*, pp. 225-240.
- Pianta, R. C., Nimetz, S. L., & Benett, E.(1997). Mother-child relationships,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outcome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12*, pp. 263-280.
- Pianta, R. C., & Stuhlman, M. W.(2004). Conceptualizing risk in relational terms: Associations among the quality of child-adult relationships prior to school entry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in first grade. *Educational and School Psychology, Vol. 21*, pp. 32-45.
- Rimm-Kaufman, S., Early, D. M., Cox, M. J., Saluja, G., Pianta, R. C., & Bradley, R. H.(2002). Early behavioral attributes and teacher's sensitivity as predictors of competent behavior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3*, pp. 451-470.
- Saft, E. W., & Pianta, R. C.(2001). Teacher'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students: Relations with child and teacher characteristic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 16*, pp. 125-141.
- Sameroff, A. J.(1995). General systems theory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Risk, disorder, and adaptation*(Vol. 1, pp. 659-695). New York: Wiley.
- van IJzendoorn, M. H., Sagi, A., & Lambermon, M.(1992). The multiple caregiver

paradox: Data from Holland and Israel. In R. C. Pianta(Ed.), *Beyond the parent: The role of other adults in children's live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pp. 5-2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Inc.

Vondra, J., Shaw, D., Swearingen, M. C., & Owens, E.(2001). Attachment stability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ag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3*, pp. 13-33.

ABSTRAC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arly Adolescents' Trust and Closeness with their Teachers from the 4th through to the 8th Grade

Jung, Byong-S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redictors which affect the development trajectories of Korean early adolescents' trust and closeness with their teachers from the 4th through to the 8th grade. To this end, a total of 2,844 students were selected from the KYPS panel. The significance of gender, SES, parent-child relationship on the trajectories were tested by means of latent growth modeling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the early adolescents' trust and closeness with their teachers tends to diminish at exponential rates. Second, gender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jectories of trust and closeness as female students have a higher initial level of trust and closenes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heir trust and closeness, however, reduces at a faster rate than those of the male students. Third, S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jectories of trust and closeness as students from families having higher SES have higher levels of trust and closeness. Fourth,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jectories as students having better attachment quality with their parents tend to have higher levels of trust and closeness with their teachers.

Key Words : teacher-student relationship,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trajectories, latent growth modeling

투고일 : 8월 29일, 심사일 : 10월 26일, 심사완료일 : 10월 26일

*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